

捷解新語의 資料性에 대한 一考察*

-韓日 兩言語의 方言을 중심으로-

丁 鋼 徹**

(e-mail: je0kch3962@naver.com)

【Abstract】

This is a study on the value of Chophae shino as a material for linguistic study focusing on its linguistic characteristics and status (including abuse of dialect). As mentioned in the previous study, the status of Chophae shino in linguistic terms can be considered from 3 main aspects: (1) the influence of Kyushu dialect (2) Kyoto dialect (3) misuse by the interference of the mother tongue and incompetence in Japanese language

Each aspect has enough probability. But concerning (3) misuse by the interference of the mother tongue (of the author) and incompetence in Japanese language, there seemed to be a need for a more sociolinguistic approach and accordingly such an approach was tried in this study.

First of all, the Japanese version has 「kureru」 and 「kutasaru」 which have been revised from the original 「yaru」 and 「yarasiraru」 as in the example 1 and example 2. There are many cases of 「~*a*(a)si 'sasi' raru」 format, which is also a very rare format in the writing at that time. But examples of these features are found in Hirano (1964) and modern dialects (Fukuoka, Saga, Kumamoto).

The Korean version has similar tendency to that of the Japanese version. One example is the case of 「-Siso」 (uniting ending) for request and describing) and noun indication . The published version has as many as 11 times of 「-Siso」 form. Tae-young Lee (1997) points out that it is a characteristic of 'Southeast dialect (of Korea)'. And

* 본 연구는 2012년도 한국연구재단의 연구 지원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금강대학교 초빙교수

Now that a long time has passed, there are is definite material in both the Korean and Japanese languages to provide a reliable definition. It is not known up to now in which place of Japan the author had served his sentence. The only thing we can do is to presume that the author might have stayed in areas in which Kyushu dialect is spoken (especially Fukuoka and Saga). It is unfortunate that the limitations of data prevent further discussion. More research may be needed on this subject as well as on linguistic phenomena unidentified so far.

key words : Chophae shino, Southeast dialect, Prize, Mzldnjeisuse, Interference of the mother tongue, Give and receive verbs, Kyushu dialect

1. 머리말

『捷解新語』는 조선왕조 사역원에서 만들어진 일본어 학습서이며 조선후기 譯科의 倭學 전공 전문가를 선발하기 위해 사용되던 교재이다. 『原刊本(1676년)』의 저자는 康遇聖¹⁾으로 『原刊本(1676년)』과 거의 같은 내용이 『改修本(1748년)』 및 『重刊本(1781년)』²⁾으로 약 100년간에 걸쳐 간행되었다. 따라서 韓·日兩言語의 대조 연구에 적합한 자료라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세 말부터 근세에 걸친 일본어와 조선후기의 한국어에 대한 언어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捷解新語에 대한 연구는 小倉進平(1914)의 「朝鮮に於ける昔時の日本語学書『捷解新語』」의 연구를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音韻, 漢字, 音聲, 敬語 등 韓·日兩國에서 많은 연구와 발전이 거듭되어 왔고, 그런 만큼 韓·日兩國의 言語史에 있어서도 큰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原刊本에서 改修本³⁾과 重刊本으로 改修된 언어적 形態와 특징(당시로서는 조금 색다른)에 대해서는 340여 년이라는 긴 시간과 공간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다.

특히 언어적인 요소에 있어서는 일부분 명확하게 해결되어 ‘捷解新語의 연구는 거의 다 끝났다’라고 알려진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言語的 位相(방언, 오용, 母語干涉...)에 대해서는 九州方言과 著者の 일본어 부족, 그리고 母語의 干涉과 과도기적인 표현 등

1) 康遇聖(1581~1653년 이후로 추정)은 壬辰年(1592년) 倭軍의 포로가 되어 10년간 일본에 억류되었다가 刷還된 후에 司諷院의 倭學 訳官으로 出仕하였다. 그는 司諷院의 倭學 教誨 직에 있으면서 倭學生徒에게 일본어를 교육하기도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편찬한 것이 『捷解新語』이다. 以上, 『通文館志』 [卷七]人物편을 중심으로 하여 언급된 京都大学 国語国文学研究室編(1973) 『三本対照·捷解新語·积文索引·解題編』 京都大学 国文学会 pp.218-226, 鄭 光(1990) 『原刊活字本捷解新語(解題)』 pp.4-7 등을 参照.

2) 『捷解新語』 『原刊本(1676년)』 『改修本(1748년)』 『重刊本(1781년)』은 以下,捷解新語, 原刊本, 改修本, 重刊本으로 略称한다.

3) 제1차改修는 英祖23년(1747)에 洪啓禧를 正使로하는 通信使를 江戸幕府에 보냈는데 이때에 使行을 따라간 倭學 訳官들에게 영조가 “이미 세월이 오래 되어 語音에 차이가 생기고 酬酢의 對話에 杆格과 矛盾이 생긴 『捷解新語』를 修整하도록 命한 데서 시작되었다. 이 修整은 丁卯(1747)通信使行의 押物通事였던 崔鶴齡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으며 귀국한 후에 崔壽仁과 더불어 이를 다시 校正하여 芸閣에서 開刊하도록 奏請하였다.

이 改修本은 실제로 그 이듬해인 英祖24(戊辰,1748년)에 校書館에서 鑄字本으로 간행되었다. 제2차改修도 ‘崔鶴齡이 東萊에 있으면서 通詞倭人을 따라 大阪江戸의 문자를 상호 참고하고 攷証하여 문자의 點劃이나 偏傍의 字法에 불합한 것을 모두 改正하였다’고 전해지는데 오늘날까지 이 제2차改修本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를 底本으로 해서 金 柏谷이 司諷院提學로 있을 때 10년에 걸쳐 제2차改修本을 修正하고 金亨禹가 損財하여 活字本을 覆刻하고 木版本으로 刊行한 것이 重刊本(1781)으로 알려져 있다. 以上, 京都大学 国語国文学研究室編(1973) 前掲書(1)pp.218-226, 鄭 光(1990)前掲書(1)pp.4-7 参照.

그 견해가 다양한 만큼 아직도 이 부분에 연구가 절실하게 느껴지는 부분이다.

특히 大友(1981)⁴⁾의 경우는, 捷解新語의 九州方言과 관련하여 비교적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濱田(1970)같은 경우에는 原刊本の 언어적 표현과 형태에 대해 일본어 부족에 의한 오류(原刊本の 저자)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 岩淵(1942)는 저자가 언어의 폭을 넓힌 표현(당시로서는 조금 색다른 표현에 대해)이라고 추정하고 있기도 하다.

本稿에서는 이런 부분에 着眼하여 韓·日 兩言語의 특징에 나타나는 요소(언어적 특징에 주목하여)들을 지금까지 誤用이나 母語의 干涉으로 단정하기 보다는 보다 명확하게 조사 분석하여 방언 등 그 位相에 맞게 접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韓·日兩言語에 있어서 捷解新語에 대한 資料性과 그 이용 가치를 높이는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된 표현들이 당시 일정 지역에서 쓰이고 있었던 方言 등으로 밝혀진다면 340여년 前의 인포먼트를 접하는 결과가 되므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일본어와 동일한 차원에서 다를 순 없지만 한국어의 경우, 당시의 교과서적인 자료에서는 드물게 보이는 방언적 요소가 확인되고 있기도 하다.

연구 방법으로는 먼저 原刊本에 보이는 언어적 특징과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다음에 日本語에서의 文末어미 「~シラル」 形態를 고찰한다. 그리고 授受動詞 「ヤル」와 「ヤラシラル」 고찰한 다음, 끝으로 한국어에 보이는 언어적 특징, 즉 의외, 서술형 종결어미 「~시소」와 동남방언으로 추정되는 名詞 「表(褒賞)」의 言語的 位相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2. 原刊本에 보이는 언어적 특징

捷解新語의 原刊本에 나타나는 언어적 특징에 대해, 言語的 位相(方言, 誤用, 母語干涉 등)을 분류해 보면 먼저 「九州方言(小倉1964, 亀井1984 그 外)」을 들 수 있고 다음에 「京阪중심의 언어(森田1973, 安田1990, 濱田1970, 亀井1984 그 外 多数)」, 그리고 끝으로 「著者 康遇聖의 母語干涉과 日本語未熟에 의한 誤謬(濱田1970, 外)」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韓·日兩言語가 유형상 같은 膠着語에 속하고, 또한 저자 康遇聖의 객관적 자료를 살펴보면 이러한 분류가 모두 다 개연성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本稿에서 注目하고자 하는 부분은 「著者 康遇聖의 母語干涉과 日本語未熟에 의한 誤謬」에 대해서이다.

객관적인 자료만을 놓고 본다면, 原刊本の 著者 康遇聖은 10세에 일본으로 끌려가서 약 10여년을 생활하고 다시 20대에 조선에 돌아와 생활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交隣須知』⁵⁾의 저자로 추정되는 雨森芳洲와는 달리 학자로서 언어적 소양이 있다 라기

4) 大友信一(1981) 「中国·朝鮮資料の語彙」 『講座日本語の語彙』 第4卷中世の語彙明治書院p.289.

5) 『交隣須知』는 『捷解新語』와는 달리 일본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한국어 학습서이다. 18C 초에 성립된 후 약 200여 년간 20여 종의 異本이 존재한다. 현재 한일 양 언어의 연구 자료로서 많은 역

보다는 오히려 方言 쪽에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原刊本에 보이는 언어적 특징들이 ‘당시의 공통어였다’ 라고 한다면 그런대로 의미와 가치가 있고, 설령 方言이라 하더라도 약 340여 년 전의 자료를 만나는 격이 되기 때문에 韓·日 兩言語의 방언 研究史에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은 분명하다.

대개 捷解新語의 성립은 시대(言語)와 내용(素材)의 판단에 따라 대개 1636년경까지 완성되었고, 1676년에 刊行되었다는 추정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다. 그 언어에 나타나는 언어적 특징과 位相에 대해서는 앞에서 크게 셋으로 분류해 보았는데, 먼저 九州方言 중심 언어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捷解新語에서는 아래와 같이 보이는 「ㄱ」 「ㄴ」을 「ㄹ」로 쓰는 것이 많이 보이는데, 이에 대해 小倉(1964)는 原刊本の 著者 康遇聖이 尙馬方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⁶⁾

- 「原 4-16:すこし不足なるとも」(不足なりとも)
- 「原 1-31:きかしらりても」(聞かせられとも)

그는 또 捷解新語의 일본어에 대해“足利時代부터 徳川初期에 있어서의 普通用語로, 全文을 通讀할 때 가끔씩 狂言記에라도 接하는 것 같은 기분이 된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다음으로 京阪지방 중심의 언어로 보는 견해가 주를 이루는데 龜井(1984)는 京阪지방의 예로서 「カイゴ」를 예로 들고 있다⁷⁾. 예를 들면 『日葡辞書』에서 「カイゴ」는 卵(달걀)이나 九州에서는 蚕(누에, カイゴともいふ)의 뜻으로 실려 있다. 따라서 捷解新語에서는 卵(달걀)의 뜻이므로 上方의 말이 된다. 덧붙이면 カイゴ는 蚕(누에)의 뜻이다. 물론 龜井(1984)는 『捷解新語』의 음운, 형태 등을 들어 康遇聖이 九州방언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도 추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森田(1973), 安田(1990), 濱田(1970)등도 앞에서 언급된 小倉(1964), 龜井(1984)와 같이 ‘九州方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京阪지방의 언어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大友(1981)는 捷解新語의 방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교적 부

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좋은 연구 또한 많이 나오고 있다. 著者로 추정(물론 부정적인 견해도 있지만)되는 雨森芳洲(1668~1755)는 경상도 사투리를 유창하게 정도의 한국어 실력에도 중국어까지 유창하게 구사했다고 전해진다. 그는 조선과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균형을 잃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는 유학자로서의 인품을 지녔었고 조선통신사는 물론 조선의 조정에서도 그의 실력을 인정할 만큼 유능한 외교관이자 학자였다고 전해진다.

26세(1693년) 때 尙馬島에 첫 발을 디딘 후 1755년 88세로 죽을 때까지 尙馬島에서 오직 외길로 살았고 조선과의 성신교린(誠信交隣)이라는 외교철학으로 조선의 많은 유학자와 교류를 하였다 라고 알려져 있다. 以上, 永留久恵(2009) 『雨森芳洲』 도서출판 어드북스 PP.8~11. 齊藤明美(2001) 『『交隣須知』의 系譜와 言語』 제이앤씨 pp.128~137. 片茂鎮(2005) 『『交隣須知』의 基礎的研究』 제이앤씨 pp.100~102. 등을 參照.

6) 京都大学国文学会(1975) 『小倉進平博士著作集(三)』 p.500, 小倉進平(1924) 『南部朝鮮の方言』 朝鮮史学会 ソウル p.190

7) 龜井 孝(1984) 『日本語のすかたところ(一)』 吉川弘文館 p.320

정적으로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⁸⁾.

“本書に見られる方言であるが、成立事情からみれば、日本と朝鮮との仲介役になっている対馬の方言が著しく反映されているように思われるが” 「まらする」を「まるする」といっているのがそれかと思われる他に、ほとんど見られず、また、中国資料の『日本風土記』で指摘した九州方言の影響も 「いとる(居処る)」⁹⁾ぐらいしか見当たらない”

끝으로 「著者 康遇聖 의 母語干涉과 日本語未熟에 의한 誤謬(濱田1970)」에 관해서 인데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康遇聖에 대한 일본에서의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만큼 학자에 따라 조금씩 견해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濱田(1970)는 原刊本에 나타나는 언어적인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¹⁰⁾

『捷解新語』(原刊本)の編者康遇聖は、その比較的幼小の時代、十年間を日本において過ごしたとすれば、もちろん外国人としてはすぐれた日本語の持主であったに違いない。しかし、やはり外国人であるからには免れることの出来ない、未熟さによる誤りが、原刊本の至るところに認められるのである。その様な、いわば「日本語になっていない」個所の改正と云うことも、「改修」の一つの目的、意義であったに違いない。

また、それほどではなくとも、日・鮮両国の役人の、公の席における会話文章としてはあまり適当とは思われぬ様な言葉づかい、つまり一種の文体(それも、やはりつきつめれば、日本語の未熟さに原因する、広義の「誤り」と云えるであろうが)の訂正、その様なものも少なくない様に見受けられる。

つまり、原刊本の「くだけた」或は「俗な」言い方、言葉づかいが改修本では、江戸時代中期頃の、武士の階層における「折目正しい」言い方に改められていると認められるものが多いのである。

それは、単に「言葉づかい」だけでなく、両書の表記に用いられた「文字づかい」にも共通したのが見られる。前者の文体は、少なくとも日本人の書としては、みしろ稚拙な、時には誤りとさえ考えられる書きぶりが見受けられるのに対し、改修本の表記は、日本人のものとしても決して水準を下らない。

特に、その巻十、書簡文のそれは、江戸時代中期頃の完成したお家流の優麗な書風で書かれて居り、どう見ても、外国人の書とは考えられないものと云ってよいほどである。

또한 여기에 岩淵(1942)같은 경우에는 아래의 用例에 보이듯이 「に格」을 사용할 곳

8) 大友信一(1981)「中国・朝鮮資料の語彙」『講座日本語の語彙』第4卷中世の語彙明治書院 p.289參照.

9) 「いとる(居処る)」에 관해서는 九州方言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捷解新語』에서는 公認된 九州方言이다.

・Idori, u, otta. 伊り, 루, ッ타(居処), 루, つた) 下(X)의 語.(여기서 下(X)는 九州지방의 방언을 뜻한다). 以上, 土井忠生 編訳(1980)『邦訳日葡辞書』p.331.

10) 濱田 敦(1970)『朝鮮資料による日本語研究』岩波書店 pp.152~157.

에 「を格」을 사용한 데 대해 완전히 誤謬라고 간주하는 데는 크게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¹¹⁾

- ・悪風おあうて[卷一]
- ・お目おかりまるするまいか[卷二]
- ・信使お御伴して行くほどなし[卷五]

∴

“『捷解新語』にみえるものは「を」を用いる場合の限界が外国人にとっては明確でないため、類推などによって使用範囲を広げすぎてしまっているという感じがすることは確かである”

다음은 일본어의 文末形態 「シラル」에 대해서 고찰해보기로 하자.

3. 日本語

3.1 文末語尾의 形態 「～シラル」

原刊本에 보이는 일본어의 또 하나의 언어적 특징에는 文末語尾 「～*a*(ア)シ ‘サジ’ラル」形態를 들 수 있다. 改修本, 重刊本에서는 「～*a*(ア)シ (サツシ) ヤル」 등의 형태로 바뀌고 있다. 아래(表1)의 「ヤラシラル」를 形態的으로 分析하면, 「ヤル」의 未然形 「ヤラ」에, 尊敬形 「シラル」가 붙은 形態이다. 물론 原刊本에서도 「ヤラシラル」以外에 「クタサル」가 함께 쓰이고 있다.

(表1) 原刊本에서 改修本, 重刊本으로 變하는 「～*a*(ア)シ ‘サジ’ラル」의 形態

原刊本(卷)	原刊本(1676년)	改修本(1748년)	重刊本(1781년)
卷一-25ウ	やらしられ	やらしやれい	やらしやれい
卷四-9	やらしられ	つかわされませい	つかわされませい
卷四-17	とらしられ	とらしやれい	とらしやれい
卷一-6	ゆるさしられ	ゆるさつしやれい	ゆるさつしやれい
卷四-24	御ろんしられ	御らんなされませい	御らんなされませい
卷四-8	お加しられ	お加されませい	おかされませい
∴			

11) 岩淵悦太郎(1942) 「康遇聖の捷解新語」 『日本語第2卷7号』 日本語教育振興会. 위의 예문에 대해 林昌規 (1998)는 다른 자료의 예를 들어 “당시의 일본어로서 文法的이었다”라고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 林昌規(1998) 「『捷解新語』における「を」格の誤用について」 『言語』2 大修館書店 p.116

위와같은 原刊本の 「~ a(ア)シ ‘サシ’ラル」 形態에 대해서, 森田(1973)는 일단 이 形態를 誤謬의 項目으로 分類한 뒤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¹²⁾

“本書には誤謬と思われるものも含んであるが、それらを誤謬と判断すること自体が簡単ではない。判定の基準を本書成立当時の日本語に置くべきはもちろんだが、当時の俗語をもまじえだつたと見られる本書では、一見誤謬と見えるものでも、実はそうでないものがあるかも知れない。本書では尊敬の助動詞『せらるる』『させらるる』や尊敬動詞『仰せらるる』がほとんどみな『しらる』『させらる』『おしらる』となっている。しかし、これを誤謬という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のは当時の『e』⇒『i』の母音交替の傾向によるものと推定されるのみならず、虎明本狂言などに同趣の実例が存するからである。

『おしらる』のごときは、史記抄に60例あまり見える『ワセラル』の変化した形であつて、『オシヤル』の成立に深い関係を持つものと考えられる。本書の諸例は、その例証を加えるものでこそあれ、誤謬とは言えないものなのである。このような点から考えれば、誤謬の認定は、本書の研究が進むにつれて明確になるべき性質のものである。従つてここには、今のところ誤謬と思われる、おもな場合について略述するに止める。これとても後日の訂正を要するものをまじえているかも知れない。”

한편 神部(1992)는¹³⁾九州의 佐賀地方에서는 『エ段』 音が 『イ段』 音에 轉化되는 傾向이 있다 고 언급하며 例로서 아래의 用例 등을 들고 있다.

- kore>koi(これ)、sore>soi(それ)、ore>oi(俺)、nareba>naiba(なれば)、naredomo>naid on(なれども)등이 그것으로, 그 過程은 「re>i」는 「re>ri>i」와 같이 推定되고、北部の 鎮西등에서는 「kori(これ)、ari(あれ)」등이 쓰인다.

참고로, 위에 언급된 北九州의 鎮西는 앞에서 언급한 九州地域이다. 물론 「~ a(ア)シ ‘サシ’ラル」 形態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고 또 다음 「ヤラシラル」에서 다시 언급되겠지만 九州의 방언과 관련지어 고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 부분이다.

3.2 授受動詞 「ヤル」와 「ヤラシラル」

原刊本の 또 다른 언어적 특징에는 당시의 일반적인 표현으로 보아, 조금은 색다른 성격의 授受動詞 「ヤル」와 「ヤラシラル」를 들 수 있다. 먼저 授受動詞 「ヤル」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 京都大学国語国文学研究室編(1973) 前掲書(1), p.251參照.

13) 神部宏泰(1992) 『九州表現論的研究』 和泉書院 p.275 參照

3.2.1 授受動詞 「ヤル」

奥津(1979)에 의하면, 現代語(의 共通語)의 授受動詞 「ヤル」의 素性は ㉔[+与エ主語], ㉕[-身内へ]㉖[-見上ゲ, -主語]㉗[-中立]로의 移動이고 「クルル」의 授受素性は, ㉘[+与エ主語]㉙[+身内へ]㉚[-見上ゲ, +主語]㉛[-中立]에로의 移動이다. 14)

한편 原刊本 에서의 「ヤル」는 총 20회 보이고 있는데 의미적 분포적 보면 送る(物)을 8회, 行かせる(人)을 9회, やる(物)을 1회, くださる(物)을 1회, 使う(人)을 1회 가 보이고 있으며 改修本 重刊本에 비해 「ヤル」 동사가 비교적 많이 사용되고 있다.

『捷解新語』의 「ヤル」를 보면, 現代語의 与え動詞(주는 동사) 「ヤル」와 「クルル」의 意味로서 쓰여지고 있고 「クルル」는 現代語의 「ヤル」의 意味로서도 사용되고 있다. 즉 이는 授受素성이 아직 정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用例를 통해서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15)

[例1] 原刊本 八-8

(主) 畧とはんつきもとうりうしてくろしたけにんに ㉔やたものを
江戸에 반들이나 무거 슈고하던 下人의게 ㉔준거슬

改修本 八-11ウ

畧とはんけつもとうりういたしまして〇くらういたしたしもしもに ㉘くれましたものを
江戸에 반들이나 무거 슈고하던 아랫사람의게 ㉘준거슬

重刊本 八-8

畧とはんけつもとうりういたしまして〇くらういたしたしもしもに ㉚くれましたものを
江戸에 반들이나 무거 슈고하던 아랫사람의게 ㉚준거슬

위의 [例1]의 授受素성과 意味를 分析하기 前에, 이해를 돕기 위해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당시의 朝·日외교 관계는 朝鮮通信使가 일본에 체재하면 滞在費의 거의 대부분을 일본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16).

위의 [例1]은 朝鮮通信使가 日本에 와서 任務를 끝내고 돌아갈 때 생긴 일의 상황 설정이다. 즉 朝鮮通信使가 에도(江戸)에 체재하면서 쓰고 남은 雜物(物資)을 옆에서 고생하던(시중 들어준 일본인) 사람들에게 전부 건네주었다. 그러나 朝鮮通信使가 日本

14) 奥津敬一郎(1996) 『拾遺日本文法論』 ひつじ書房pp.347-370.

15) 捷解新語에서의 授受표현 및 장면, 배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황 설정과 설명, 등에 대해서는 丁 鋼徹(1999)에서 언급된 바 있다. 紙面의 한계와 본고의 주제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本고와 관계가 있고 이해를 돕는데 필요한 부분 以外에는 대부분 생략했다.

16) 趙南德(1994) 『捷解新語의 改修分析』 書光學術出版社 p.138參照.

에서 朝鮮을 향해 출발 한지 3일째가 되던 날 일본 측의 賄奉行(물자조달 책임자,官職)이 通信使가 남긴 雜物에 小判金子(金貨)百장으로 바꾸어(일부러 사람을 시켜)朝鮮通信使 쪽으로 보내 왔다.

여기에 중간 전달자인 對馬島主가 또 다시 小判金子(金貨)百장을 일본 측의 賄의奉行 쪽으로 되돌려 보낼 수가 없는 입장을 설명하고 通信使가 받아 주기를 권한다. 이 권유에 대한 朝鮮通信使의 대답이 위의[例1]이다. 즉“ 江戸에 반 달이나 묵으면서,고생한 아래 사람에게 준 것을 自分(通信使)가 다시 받아들이는 것도 예의가 아니고 對馬島主의 힘으로 賄의奉行 쪽으로 되돌려 보낼 수가 없다면 對馬島에서 늘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전하는 장면이다.

例① 「ヤル」의 授受素性を 보면 ㉑[+与エ手主語]㉒[-主語][一見上ゲ]㉓[-中立]㉔[-一身内へ]와 같이 되어 있다. 現代語에서의 授受動詞「ヤル」의 授受動詞素性を 完全하게 갖추고 있다. 朝鮮語의 對譯도 「ヤル」의 意味인 ‘주다(与える)’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처럼 「ヤル」라고 써야할 곳을 原刊本에서는 ①「ヤル」로 표기하고 改修本 重刊本の ②③에서는 「クルル」로 고쳐 쓰고 있다. 덧붙이면 原刊本の 저자는 현대어처럼 「ヤル」라고 表記하고 있는데 改修本 重刊本 의 저자는 「クルル」라고 고쳐 쓰고 있는 것이다.

「ヤル」「クルル」를 通時的으로 살펴보면 이미 上代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고, 대개는 현대어와 비슷하게 쓰이고 있다(물론 예외는 많음). 그러나 현대어에서와 같이 授受動詞를 구분해 주는 조건인 視点(1인칭에서 2,3인칭으로 이동 等)의 意味素性は 명확하지가 않는 경향이 있다.

특히 「クルル」를 보면 「상대가 신분이 낮거나 상대를 경멸할 때, 또는 동식물의 경우」에는 「私が～にあげる(내가 ~에게 주다)」와 같이 「クルル」가 다른 의미(현대어에서의 ヤル)로도 쓰이기도 한다. 참고로 17C의 キリシタン資料인 『日本大文典』과 『日葡辞書』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邦訳日葡辞書』(1980)¹⁷⁾

・ヤル : Yari.ru.attaヤリル.ツタ(遣)る.つた)送る

①つかわす何か物を与える

「Facauoyaru.(はかを遣る)

②車をさきへ進ませる

・クルル : Cure.uru.eta.クルル.レタ(呉)れる.る.れた)

「身分が高い人が下の者に与える。おのれにくれた」。

『日本大文典』(1955)¹⁸⁾

17) 土井忠生 編訳 (1980) 「ヤル・クルル」 『邦訳日葡辞書』 岩波書店.

・クルル : Hitoni monouo cururu(人に物を呉る)

「身分の低い者に向かって盛んに用いる。又、尊敬せられるべき人から卑しい者へも使ふが、それは余り尊大ぶったところがなく、ある優しきを持った言い方だからである。例えばMaittecurrei(参れ)の意。Xitecurrei(してくれい)は、これを為るやうに汝に頼むという意。Caitecurrei(書いてくれい)。以下省略(ヤルについては、用例と言及が非常に少ない)」

따라서[例1]의 경우는, 原刊本の「ヤル」를, 改修本 重刊本の ②③과 같이,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クルル」로 고쳐 쓰고 있다고 생각된다. 鄭光(1990) 등에 의하면 崔鶴齡이『捷解新語』를 改修 할 때, 동래에 있으면서 通詞倭人을 따라 大阪、江戸의 문자를 상호 참고하고 攷証하였다 라고 알려져 있다. 또 문자의 点劃이나 偏傍의 字法에 不適合 的을 개정하였고 私力으로 活字 印行하였다 고 전해진다. 따라서 당시 [例1]의 ①②③과 같은 상황에서는「クルル」가 훨씬 더 일반적이었기 때문에「ヤル」를「クルル」로 적었다고 추정되고『日本国語大事典』(1974)에는 鹿児島,福岡,長崎 등의 방언으로 수수동사「クルル」가 다음과 같이 실려있다.

- ・「娘を嫁にくれる(딸을 시집 보내다)」
- ・「おのれが教えてくれるから覚えておけ(너에게 가르쳐 줄테니까 외워둬라)」

물론 시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정적 단서는 되지 못하지만 国立国語研究所(1967)의『日本言語地図』와 小学館(1989)의『日本方言大辞典』을 보면 九州지방의 福岡,佐賀,熊本에서는「ヤル」가「ヤル」「クルル」의 의미로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⁹⁾

또한 平野(1964)도 역시 北九州에서는「ヤル」「クルル」의 대립보다는「ヤル」「モラウ」의 대립이 일반적이고「クルル」는 별로 쓰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²⁰⁾

따라서 原刊本에서의「ヤル」「クルル」만 놓고 본다면 原刊本の 著者 康遇聖은 나름 九州方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에 또 하나의 수수동사「ヤラシラル」의 예를 보자.

18) ロドリゲ스 土井忠生訳(1955)「ヤル・クルル」『日本大文典』三省堂.

19) 国立国語研究所(1967)의『日本言語地図』를 보면, 현대어의 授受動詞「ヤル」의 경우,그 종류가, 일본 전역에서 약 95개의 어휘로 쓰임을 알 수 있고, 또한 九州地方에서는「ヤル」가 한국어의 '주다' 동사처럼 주로「ヤル」「クルル」의 意味로 쓰임을 알 수 있다.

・[질문1]「ただで与えることを物を、どうするといひますか。私が友だちに、たばこを一本どうすると、言ひますか。お金と引換えるなら〈売る〉といふところですが……」

・[질문2]「よその人が」自分に物を渡すことを、どうするといひますか。友だちが私にたばこを、一本どうすると、言ひますか。

20) 平野(1964)「やるの意味-福岡方言について」『北九州大外国語学部紀要39』参照.

3.2.2 授受動詞「ヤラシラル」

먼저 「ヤラシラレウ」를 形態적으로 分析하면 「ヤル」의 未然形 「ヤラ」에, 尊敬形 「シラレウ」가 붙은 形態이다. 물론 原刊本에서도 「ヤラシラル」以外에 「クタサル」가 양쪽 다 함께 쓰이고 있다. 用例를 통해 그 쓰임을 보면 다음과 같다.

[例2]

原刊本 三-23

(客)おいりのさうもつわとうりうのあいたは加り①やらしられうほかに
五日雜物은묵는스이만㉠주실써시오니

改修本 三-31

おいりのさうもつわ〇とうりうのあいたは加り②クタざるものゆゑ
五日雜物은묵는스이만㉡ 주실겨시오니

重刊本 三-29

おいりのさうもつは〇とうりうのあいたはかり③クタざるものゆゑ
五日雜物은묵는스이만㉢주실겨시오니

위의 [例2]의 배경은,[例1]와는 반대로 日本에서 朝鮮으로 건너온 日本側(正官=客)과 朝鮮側(東來府使=主)과의 對話 장면이다. 內容은 正官이 日本을 出發할 때 對馬島主로부터 ‘빨리 돌아 올 수 있도록 하라’ 했다 라고 전했다. 이것을 들은 朝鮮側이 ‘公貿易등의 看品도 아직 안 끝났고, 서울로 부터의 封進雜物(日本으로 부터의 선물에 대한 답례)의 연락이 늦어지고 있다’ 라고 답을 한다. 이 답에 대한 정관(日本측)의 말이 [例2]인데 ‘서울(政府)로 부터의 연락에 따르겠으나 지연되면 朝鮮側이 雜物을 주시게 될 것이니 朝鮮側에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전하는 內容이다. 즉 正官(日本側)이 「受ケ手(받는 이)」 이면서 「話者」 이고 朝鮮側이 「聽者」 이면서 「与エ手(주는 이)」 이다.

[例2]의 ①やらしられう의 授受素性を 보면 ㉠[+身内へ] ㉡[+与エ主語] ㉢[+見上ゲ][+主語] ㉣[-中立]이기 때문에 現代語의 授受動詞「下サル」의 素性이다(물론 ㉢㉣의 授受動詞의 素性は 話者の 視點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

따라서 改修本 重刊本에서는 ② ③과 같이 「クタサル」로 고쳐 쓰고 있는 것이다.²¹⁾ 그러나 原刊本の 著者 康遇聖은 「ヤル」의 尊敬語 「ヤラシラル」로 즉 改修本, 重刊本과는 다른 어휘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의 用例는 여러 자료에서

21) 下サル의 意味로서 「ヤラシラル」가 쓰이는 경우는, 九州地方의 方言 外에 그 用例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다.

찾아 봤지만 드물었다.

단지 平山輝男外(1993) 『現代日本語方言辞典』에서의 범례를 보면, 福岡、佐賀地方의 방언에 아래와 같은 표현이 보이고 있다.

- 福岡の例：「トナリノオバサンノ オカシバ ヤラッシャッタ」→隣のおばさんがお菓子をくれた。
- 福岡の例：「シエンシェイガ カシバ ヤンサッタ」→先生がお菓子を下さった。

참고로 筆者가 2000년 8월 현지(九州地方)에서 직접 확인한 바(개인접촉)에 의하면, 佐賀県에는 물론 「ヤンサッタ」와 같은 형태가 사용되고 있었고, 같은 현의 名護屋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 「ヤンサッタ」보다도 「ヤラッシャッタ」와 같은 형태가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연하면 이 지역에서는 授受動詞 「クレル」「ヤル」의 意味로서 「ヤル」가 쓰이고 있고(한국어 ‘주다’ 처럼), 「下サル」의 意味로서 「ヤラッシャル」가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名護屋(なごや)의 지리적 조건은, 壱崎(島)가 바로 보이는데, 壱崎(島)는 名護屋(なごや)와 對馬島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九州에서 보면 부산과 비교적 가까운 지역으로, 壬辰·丁酉 倭亂(文錄 慶長役) 때에는 豊臣秀吉가 朝鮮출병의 진지(陣地)로 사용된 곳이기도 하다.

이상과 같이 일본어에서, 原刊本の 특징인 文末語尾 「~a(ア)シ ‘サジ’ラル」形態와 授受動詞 「ヤル」와 「ヤラッシャル」에 나타나는 언어적 특징을 살펴 보았다. 捷解新語에서의 九州방언이라 하면, 『日葡辞書』에서, 九州방언이라고 명확하게 언급된 「居処ル(いとる)」 이외에는 거의가 추정일 뿐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타난 原刊本の 저자 康遇聖의 囚人생활(약10년)과 일본에서의 동정에 대해서는 일본 측의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알 수가 없다. 만약 이것이 밝혀진다면 역사, 문화 언어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 점에 관해서는 단지 언어에 의해 판단할 뿐인데, 龜井 孝(1984)는 『捷解新語』의 음운 형태 등을 들어 康遇聖이 九州방언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고 또한 京都大学国語国文学研究室(1973)은 京都와 大阪의 사이로 추정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原刊本에는 敬語가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다. 改修本 重刊本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드러난다. 다만 本稿에서는 좀 더 객관적으로도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된다. 이유는 原刊本이 만들어질 당시에 壬辰·丁酉 倭亂 등 전쟁 이후가 될 뿐만 아니라, 저자 자신이 10년간 포로로 억류 생활(피해자)을 하였기 때문에 일본어 부족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당시의 시대상과 개인적인 감정도 조금은 작용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고 나름 의심이 되는 부분이다. 이상으로 日本語에 나타나는 언어적 특징에 대해서 고찰했으나, 다음은 韓國語에 나타나는 언어적 특징을 살펴보자.

4. 韓國語

4.1 依賴 敘述形 終結語尾 「~시소」

韓國語에 나타나는 언어적 특징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本稿에서는 의뢰 서술형 종결어미 「~시소」形態와 名詞 表(褒賞)의 言語的 位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捷解新語의 한국어에서 依賴를 나타내는 敘述終結語尾 「~시소」形態는 대개 「~늑이다, ~옵니(습니), ~쇼셔, ~옵소(습소), ~시소」 등이 보이는데, 「~시소」形을 제외한 이런 형태는 古語辭典 등 다른 자료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다. 그러나 依賴形의 終結語尾 「~시소」 같은 경우는, 原刊本에서 아래의 (表2)와 과 같이 11회나 보이고 있는데 비해, 古語辭典 등 다른 자료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시대의 資料인 『交隣須知』 『翻譯老乞大』 『註解順天金氏墓出土簡札』 등에서도 비교적 그 예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小倉(1975)는 「~시소」形態에 대해서, 손윗사람에 대해서 命令, 또는願望을 나타내는 尊敬語尾로서, 그分布는 주로 東南地方에 위치한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例3]

原 二-9(客)はんすしゅう①きかしられ
判事네 줄 ㉠드르시소

한편, 위의 [例3]과 같이 보이는 捷解新語에서의 「~시소」形態의 분포를 보면 原刊本에서 11회 (補助動詞2회), 改修本에서 4회, 그리고 重刊本에서 1회 보이고 있다. 즉 原刊本の 「~시소」形態가 改修本 重刊本에서 점점 改修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原刊本の 11회 중에서는 10회가 感情對立의 場面(例外 1회)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感情對立이 심한 場面(五-21:請改小童衣服)에서는 4회나 사용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尊敬의 정도가 그다지 높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²²⁾

22) 李太永(1997)은 「~시소」形態를 「東南方言」의 特徴이라고 言及하고 있으며 또한, 小倉(1975)는 「~시소」形態의 사용지역을 아래와 같이 分類하고 捷解新語의 例를 들고 있다.

· 「京畿」 「忠南」 「忠北」 ⇒ 無 · 「全南」 「慶北」 ⇒ 全部 · 「慶南」 ⇒ 密陽, 金海, 馬山
· 「江原道東海岸」 ⇒ 蔚珍, 平海. 以上, 京都大学文学部(1975) 『小倉進平博士著作集(三)』 京都大学文学部国語学国文学研究室 p.411. 李太永(1997) 『譯註捷解新語』 太学社 p.90

(表2) 『原刊本 「~시소」의 分布』

番号	卷帳	場面	話者	原(日語対応)	改(日語対応)	重(日語対応)
1	1-31ㄷ	茶礼催促 (不滿)	朝鮮側	ご覧しられ◎ (補助動詞)	みなつすやれませひ ◎	—
2	2-9	餅品器皿論難 (不滿)	朝鮮側	御めんなされ◎	御めんなされませい ◎	御めんなされませ이 ◎
3	2-9ㄷ	餅品器皿論難 (不滿)	日本側	きかしられ◎	無対応	無対応
4	5-21	請小童衣服(不滿)	日本側	きかしられ◎	きかしやれい◎	—
5	5-24	請小童衣服(不滿)	日本側	とりなせやり◎	於たのみます	—
6	5-24ㄷ	請小童衣服(不滿)	日本側	さいかくめされ◎	さい加くなされい	—
7	5-30ㄷ	請小童衣服(不滿)	日本側	こころゑや里◎	こころゑさつしゃれい	—
8	7-4	筑前主礼侯信 使(遠慮)	朝鮮側	於しられ◎	於於せあけられて くたされませ이	於於せあけられて くたされませ이
9	7-19ㄷ	入江戸見 閑白(準備)	朝鮮側	さしつ於しられ ◎	さしつなされくたしや れい	—
10	8-8	信使不受金 (遠慮)	朝鮮側	みなしられ◎ (補助動詞)	なされくたされませ이	なされくたされませ이
11	8-9	信使不受金 (遠慮)	朝鮮側	つかいや里◎	つかわされませ이◎	つかわされませ이

(위에서 ◎표시가 있는 곳은 「~시소」 形態가 사용된 곳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 한 점은 앞에서 언급된 「~시소」 形態가 주로 사용되는 지역이 한국의 東南方言 지역이라는 점이다. 이 지역은 저자 강우성의 고향(경남 진주)이 포함된다. 이런 점으로 보아 捷解新語에서의 한국어에서도 어느 정도는 저자의 주관적인 언어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다음은 韓國語의 名詞 表(褒賞)의 言語的 位相에 대해서이다.

4.2. 名詞 表(褒賞)의 言語的 位相

捷解新語의 한국어에 있어서 原刊本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언어적 특징은 名詞 表(褒賞)의 言語的 位相에 관해서이다. 예문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의 [例4]의 장면 내용은 역시 [例1] [例2]의 장면과 관련되는 내용이다. 즉 조선 측이 일본 측을 향해서 雜物(物資)을 건네주는 장면인데 “對馬島主께 드리는 말씀은 오랫동안 수고

하던 아래 사람들에게 별로 성의를 표시할 것도 없었는데 마침 雜物이 남았으니 차라리 이것이나 정으로 주려고 한다” 라는 내용이다.

[例4]

原刊本 八-37

(主)ひざひざくらうしたけにんともいへちに①しろしいたすこともなし

오래 슈고하던 아래 사람들의 별로 ㉠포할 일도 업서

이와 관련하여 小倉(1944)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京城地方의 [jo]音은 地方에 따라 [o]·[ø]등으로 발음된다. 예를 들면, 車票(汽車 또는 自動車の 票)의 票(票)[P'jo]는 大丘·高靈·金泉·義城·醴泉·安東·榮州·青松 지방에서는 어느 곳에 서든 [P'o]이고 學校 [hak-kjo]·孝子[hjo-d3²³a]등을 이 지방에서는, ⇒[hak-kol], [hæk-kol]/[ho-d3a][so-d3a]처럼 발음한다. 이는 慶尚南道地方도 共通의 現像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부분도 역시 저자 강우성의 고향(진주)과 일치하는 지역이다.

한편, 小倉(1944)의 해석과는 달리, 韓國精神文化研究院(1995)에서는 위의[例4]의㉠ ‘포하다’의 意味를 “포(褒)하다” “포상(褒賞)하다” 와같이 해석하면서, 아래와 같이 原刊本の 用例와 함께 또 하나의 用例를 싣고 있다.²⁴⁾

- 原刊本 三八-37 “오래 슈고하던 아래 사람들의 별로 포할 일도 업서”
- 東新孝 一-13b “효자 막을히라 하여 씨 포하니라”

5. 마무리

이상으로, 本稿에서는 捷解新語의 資料성과 방언에 着眼하여 韓·日兩言語에 나타나는 언어적 특징에 주목하여 조사 분석해 보았고 그 言語的 位相에 맞게 접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일본어의 경우 原刊本에 보이는 당시로서는 특이한 표현들이 九州方言과 관련지어 추정할 수 있었고, 또한 한국어의 경우에도 東南方言과 관련해서 저자의 언어인식을 엿볼 수 있었다.

捷解新語에 관해서는 이미 韓·日兩國에서 수많은 좋은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을 뿐만 아니라 중, 근세의 韓·日兩言語에 대한 자료로서도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아직까지 著者康遇聖의 誤用이나 母語의 干涉 등으로 간주

23) 小倉進平(1944) 『朝鮮語方言の研究下卷』 p.424 參照.

24) 韓國精神文化研究院(1995) 『17세기 국어사전(하)』 太学社 p.2688 參照.

되는 부분들에 대해 本稿에서는 언어학적 誤謬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저자의 언어인식(방언 등)에 방점을 두고 싶다. 本稿를 엮어나가면서 340여년 前의 일본의 九州方言과 한국의 東南方言의 인포먼트를 접하는 느낌이 들기도 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다만 오랜 시간이 지난만큼 자료의 限界 때문에 더 이상 論을 진행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捷解新語에 보이는 이러한 모든 언어적 특징들을 찾아내고 또 그 言語的 位相을 밝힌다면 韓·日兩言語에 있어서도 意味가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資料의 限界를 극복해 나가면서 이와 관련된 모든 연구를 포함해서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삼고 싶다.

【参考文献】

- 岩淵悦太郎(1942) 「健遇聖の捷解新語」 『日本語教育振興会』
 小倉進平(1920) 『朝鮮語学史』 刀江書院
 小倉進平(1938) 『朝鮮資料における謙讓語・尊敬語の助動詞』 東洋文庫
 大友信一(1981) 「中国・朝鮮資料の語彙」 『講座日本語の語彙』 第4卷中世の語彙明治書院
 奥津敬一郎(1996) 『拾遺 日本文法論』 有限会社ひつじ書房
 亀井 孝(1984) 『日本語のすがたところ(一)』 吉川弘文館
 神部宏泰(1992) 『九州表現論的研究』 和泉書院
 京都大学国文学会(1971) 『三本対照捷解新語一本文編』
 京都大学国文学会(1975) 『小倉進平博士著作集(三)』
 永留久恵(2009) 『雨森芳州』 도서출판 어드북스
 齊藤明美(2001) 『『交隣須知』의 系譜와 言語』 제이앤씨
 土井忠生訳(1955) ロドリゲ스 『日本大文典』 三省堂
 土井忠生訳(1980) 『邦訳日葡辞書』 岩波書店
 浜田 敦(1983) 『朝鮮資料による日本語研究』 岩波書店
 平野尊識(1964) 「やるの意味—福岡方言において」 『北九州大外国語学部紀要39』
 日野資純外3人(1983) 「九州地方の方言」 『講座方言学9』 図書刊行会辞典類
 日本大事典刊行会(1972) 『日本国語大辞典』 小学館
 平山輝雄編(1993) 『現代日本語方言大辞典』 明治書院
 松田正義(1978) 『古方言書の追跡研究』 明治書院
 宮地 裕(1965) 「やる、くれる、もらう」を述語とする文の構造について 『国語学』 63
 森田 武(1973) 「捷解新語 解題」 『三本対照捷解新語譯文・索引・解題編』 京都大学国文学会
 安田 章(1990) 『外国資料と中世国語』 三省堂

- 安田 章·鄭光(1991)『改修捷解新語』(解題, 索引, 本文) 太学社
李太永(1997)『譯註 捷解新語』太学社
林昌奎(1998)「捷解新語における(を格)の誤用について」『言語』2 大修館書店
丁鋼徹(1999)「『捷解新語』의 수급표현에 대한 고찰」『日本語文学第6輯』韓国日本語文学会
鄭 光(1988)『司訳院 倭学 研究』太学社
鄭 光(1990)『捷解新語 解題』弘文閣
趙南德(1994)『捷解新語の改修分析』書光學術出版社
片茂鎮(2005)『『交隣須知』の基礎的研究』제이앤씨
韓美卿(1995)『『捷解新語』における敬語研究 1』博而精
韓国精神文化研究院(1995)『17세기 국어사전(하)』太学社

투 고 일 : 2015. 8. 31

심 사 일 : 2015. 9. 12

계재확정일 : 2015.10. 3